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의 새로운 경영교육 프로그램

안	병	훈*
김	영	배**
배	중	태***
이	승	규****

.....

새로운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기술혁신의 가속화와 함께 우리나라 기업들은 세계적 기업과 국내외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영과 기술을 동시에 이해하고 전략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경영자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KAIST 테크노 경영 대학원에서는 “기술과 경영의 결합을 통한 세계 수준의 경영대학원”이라는 비전하에 교육방침을 GLOBAL-TIPS(GLOBAL perspectiv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Integration ability, Professional foundation, and Scientific analysis)로 정하고, 운영원칙도 TEAM(Team approach, Excellence, Alliance with partners, and Market orientation)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현재 테크노경영대학원에는 학문적 수월성을 추구하는 5개 집중 분야 (경영관리, 기술/환경 경영, 정보/통신경영, 국제경영/통상 및 산업경제/ 정책)로 구성된, “경영공학전공”의 석박사과정(ME/Ph.D.) 프로그램과 기술경영, 금융공학, 경영정보, 통신경영/정책전공 등 실무형 복합전문성을 추구하는 4개의 “특수전공” 석사과정(MBA)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경영/정책전공도 곧 개설할 예정이다. 이 모든 프로그램은 세계적 수준의 이공계 대학인 KAIST에서 정보/통신/환경등의 기술적인 지식과 계량적인 분석능력 및 컴퓨터 활용 기술을 토대로 경영 분야의 최신 이론과 사례를 통합한 경영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존 경영 교육 프로그램과 더욱 차별화되고 국제화를 강조하며 우리 기업과의 연계강화를 통한 새로운 한국형 경영 이론 및 교육체계를 정립하는 것을 테크노경영대학원의 사명으로하고 있다.

.....

*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장, 교수, E-mail) bhahn@cais.kaist.ac.kr
 **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부교수
 ***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부교수
 ****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조교수

1. 서 론

기업의 경쟁력은 근본적으로 구성원의 능력과 성과에 달려있다.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에 따라 기업의 가치활동 패턴이나 경쟁우위의 요소는 다르겠지만, 이러한 모든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조정하는 것은 인적자본(Human Capital) 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정보통신/기술/환경 등이 21세기를 주도하는 새로운 국가간/기업간 경쟁의 원천으로 부각되면서 조직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이러한 새로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의 확보가 핵심적 관건이 되었다. 아울러 경영자들도 기술에 대한 이해 없이는 주어진 짧은 시간 내에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큰 제약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인식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경영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시도가 있어왔다. 그러나 그간 국내에서는 거의 동일한 전통적 경영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경영교육이 이루어져 왔고, 여러 경영대학의 교육프로그램간에 차별적인 요소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우리 산업의 국제화의 진전과 세계적 경쟁의 심화 및 기술변화로 인해 기존 조직인력의 대폭적인 감축과 동시에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가진 경영자의 부족이 함께 나타나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최근 여러 경영대학에서 새로운 환경변화에 선응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적 안목을 가진 경영자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과 다른 접근방법을 준비하고 시도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아직 경영 능력과 기술을 이해하는 고급 경영/정책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국제수준의 경영대학원은 설립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첨단기술의 메카니즘을 이해하고, 이러한 기술의 응용에 대한 경영적 안목을 지닌 새로운 기술경영자를 교육할 수 있는 경영대학원의 설립 필요성이 몇 년 전부터 논의 수준에서 제기되어 왔다. 1995년부터 이러한 논의가 정부 및 산업계의 호응을 받아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고, 1996년 3월 KAIST의 홍릉캠퍼스에 테크노경영대학원이 출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의 최근 경영교육현황을 간략히 소개한 후,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의 설립목적과 비전, 교육방침, 그리고 경영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아울러 향후 우리나라 경영교육의 방향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경영이론에 대한 연구 못지않게 경영교육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현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모형을 하나의 새로운 한국형 경영교육모형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 테크노경영대학원의 태동배경 및 비전

1) 경영교육의 새로운 추세

기술발전의 속도가 빨라지고 복잡하게 전개되면서 더욱 더 기업의 경쟁력은 기술력과 조직력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을 보이고 있고,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은 거의 기술의 문제와 연계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추세에 발맞추어 외국의 이공계중심 대학교에서는 경영교육 프로그램과 기술교육 프로그램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방식의 경영교육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잘 알려진 MIT Sloan School, 펜실베니아대학 Wharton School, 이스라엘 Technion 공대, 홍콩과학기술대학 등 이공계중심 대학교의 우수 경영대학원에서는 학문적 탁월성을 추구하는 창의력 및 이론중심의 교육과정과 더불어, 우수한 산업체 및 공공부문 인력들을 위해 이론과 실제의 균형있는 현장 응용중심의 교육과정도 강화하고 있다.

참고로 MIT Sloan School의 5개년 계획(1995-1999)에는 이러한 경영교육의 추세들이 잘 반영되어 있다. 이 계획에 의하면 Sloan School은 혁신주도기업(Innovation-driven Firms)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 인적자원, 세계화전략, 여러 경영기능간의 통합(Functional Integration), 학습 및 조직변화를 중시하는 교육과정을 추구하고 있으며, MIT의 다른 공학부문 학부(學部)들과도 연계하여 세계최고 공과대학의 경쟁우위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MIT의 5개년계획에 나타난 향후 장기발전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미 성공적으로 운영중인 제조업지도자과정 (Leaders For Manufacturing: LFM) 형태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Joint Engineering/Sloan Masters Degree in Large Scale System Design (복잡한 제품/시스템의 Architecture Design)을 곧 개설한다. 둘째, 전문가 양성교육이 점차 현지교육, 단기과정, 기업중심 프로그램(On-site, Short, Company-focused Program)으로 바뀌어가므로, 쌍방컴퓨터네트워크(Interactive Computer Network)를 통한 원격강의체제 구축에 역점을 둔다. 셋째, 아시아 교육시장을 목표로, 중국을 비롯한 극동 및 동남아 국가 대학들과의 파트너십에 바탕을 둔 국제협력력을 강화한다. 넷째, 최고경영자과정(Executive Programs)을 확대하고, 회사 및 학생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지향한다. 다섯째, MBA 과정을 확대 발전시킨다. 여섯째, 기존의 기업수탁과제 수행노력에 추가하여, 전략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중점과제를 개발하여 공동연구한다.

이미 MIT는 1993년 마케팅 전공의 Glen L. Urban 교수가 학장으로 취임하면서 대폭적으로 교과과정을 개혁하여, MBA 과정을 교수들의 학문분야 중심이 아닌 학생들의 Career Track 중심으로 재편하였다. 새로 도입된 MBA Career Track은 재무관리(Financial Management), 금융공학(Financial Engineering), 신제품/신사업관리(Product and Venture Management), 정보기술(Strategic Information Technology), 전략경영 및 컨설팅(Strategic Management and Consulting) 등 5개이며, 장차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과 환경경영(Proactive Environment Management)을 새로 추가할 예정이다. 즉 마케팅, 생산경영, 기술경영 등 기존의 기능별 분야를 모두 묶어 신제품/신사업관리로 통합한 것이나, 금융공학

프로그램과 재무관리 프로그램의 분리 등은 기존의 경영분야의 분류(Grouping)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한편 Wharton School에서는 도입한 새로운 MBA 프로그램에는 다섯가지의 새로운 접근방법이 담겨있다. 첫째는 종합적 학습(Integrative Learning)이다. Wharton School에서는 각 기능별 경영분야의 강점을 바탕으로, 이들 과목들을 체계적으로 묶어 각각 6주씩으로 구성된 4학기제(Four Quarters) 시스템으로 교과과정을 운영하는데, 이를 통해 각 기능별 경영분야들의 관계를 이해시키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둘째로는 세계화 교육의 강화(Global Focus)를 들 수 있다. 국제전략경영(Global Strategic Management)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였고, 4주간 러시아, 중국, 독일, 일본 등 외국을 여행하는 세계체험프로그램(Global Immersion Program)도 도입하였다.

세째는 핵심 현안(Critical Issues)에 대한 교육을 확충하였다. 즉 정보, 기술혁신/기업가정신, Geopolitics, Risk & Crisis Management, 환경 등 새로운 시대의 경영자에게 필요한 현안관련 주제들을 소규모 선택과목(Mini-electives)으로 제공한다.

네째는 리더십 교육을 강화하였다. “조직에서의 자기관리(Management of Self in Organizations: Foundations of Leadership)” 과목을 개설하였고, 학생들이 개인 또는 팀을 이루어 팀워크, 의사소통, 협상, 경력관리 등 제반이슈들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다섯째, 학생들이 힘겨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입학전부터 미리 준비할 기회(Advanced Preparation)를 제공하고 있다. 즉 “에비입학과정(Pre-entry Program)을 운영하여 에비 입학생들에게 몇 개 과목에 대해 미리 준비하도록 배려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주로 MBA 교육에 국한된 것이며, 기존의 Ph.D. 과정은 각 분야별 학문적 탁월성을 중심으로 계속 발전시킨다. 요약하면, 미국을 중심으로한 선진국에서의 MBA 교육과정의 변화는 크게, 국제화의 진전, 고객(기업,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으로의 개편, 경영과 기술의 결합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경영교육에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려는 노력은 있어왔으나 아직 이러한 노력들이 경영대학원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수행되지는 못하였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는 결집된 노력의 결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테크노경영대학원을 설립하여 21세기형 경영 및 정책 분야의 선도인력의 양성과 관련 연구를 담당하는 국제적 수준의 경영대학원으로 발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2) 테크노경영대학원의 설립목적 및 비전

KAIST는 설립초기부터 선진국 대학의 운영방식을 도입하여 국제적으로도 많은 성

과를 얻었고, 독특한 문화를 구축하면서 국내 학계를 선도해 왔다. KAIST가 지녀온 이러한 체제와 역할은 세계화시대가 요구하는 국제수준의 경영대학원 설립에 좋은 토양이 될 수 있다. 아울러 KAIST의 경영관련 프로그램은 KAIST 설립 당시부터 일반종합대학의 경영대학원과 차별화하여 기술/정보통신/환경 등 현대 산업사회 및 정보사회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경영 및 정책교육을 실시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이 우리나라 경영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는데 모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잇점들을 바탕으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은 기술, 정보통신, 환경과 경영/정책의 결합을 통해 21세기 경영을 선도하고, 나아가 세계중심국가의 위상에 부합하는 세계수준의 경영대학원으로 발전한다는 목표로 설립되었다. 즉 기술, 정보통신, 환경, 의료/복지 등 21세기 주도분야에 대한 경영과 정책을 다루는 경영대학원을 육성하고, 미국, 유럽, 아시아 등의 우수 외국경영대학원과의 연계운동을 통해 국제적 인지도를 높여 세계수준의 경영대학원으로 발전하고자 한다. 아울러 테크노경영대학원을 아시아권역의 차세대 경영/정책 지도자를 양성하는 국제대학원으로도 활용한다.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은 KAIST의 이공계 전공과 연계하여, 일반 경영대학원과 차별화된 경영/정책 대학원을 목표로 하며, 설립의 기본취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 탁월성을 추구(Commitment to Excellence in Education and Research)한다. 둘째, 경영학과 공학 교육의 연계를 추구(Integration of Management and Technology Education)한다. 셋째, 국가정책 및 기업 수요에 부응(Attention to Social Needs)한다.

따라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의 미래상에는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한 21세기 경영을 추구하며 세계수준의 경영대학원으로 발전한다는 지향이 담겨있다. 테크노경영대학원의 비전은 다음과 같다.

기술과 경영의 결합을 통한 세계 수준의 경영대학원

Quest for a World-Class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3. 테크노경영대학원의 교육방침 및 운영원칙

1) 테크노경영대학원의 교육방침(GLOBAL-TIPS)

세계 유수의 경영대학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방향은 세계화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국제적 감각의 배양, 리더십 교육, 기술과 경영의 연계, 이론과 실제의 연계, 학문분야간의 연계 등 종합적 문제해결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1세기 우리나라 산업의 세계화를 선도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적합한

미래형 경영방식을 연구/보급하고, 과학적 분석능력과 논리적 사고능력을 갖추고, 기술과 경영에 대한 통합적인 지식과 안목을 바탕으로 범세계적인 시야에서 새로운 미래와 혁신을 창조하는 리더를 많이 양성해야 한다. 이는 바로 경영대학원에 맡겨진 국가적인 사명이다.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위해 <그림 1>에 정리된 바와 같이 GLOBAL-TIPS의 교육방침에 따라 운영한다.

<그림 1>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의 교육방침 : GLOBAL-TIPS

GLOBAL Perspective	범세계적 시야
Transformational Leadership	새로운 미래와 혁신을 창조하는 리더십
Integration of Cross-Disciplinary Functions	통합적인 지식과 안목
Professional Foundations	전문분야의 탁월한 역량

(1) 세계화를 위한 전략적 시각 (GLOBAL Perspective)

교육내용에서 국제적 시각을 강조하며, 연구활동에 있어서도 세계화 관점 및 이와 연계된 주제들을 장려한다. 아울러 일정기간동안의 해외연수를 통해 국제적 감각을 익힐 기회를 가지며, 특별 세미나, 외국사례분석, 학생그룹활동 등을 통해 범세계적 시야를 갖추기 위한 제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 새로운 미래와 혁신을 창조하는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

교육과정에서는 팀워크의 중요성, 상호 발전적인 교류와 혁신정신, 효율적 협상, 다양성의 수용과 조정능력, 조직원의 자발적인 주도활동, 자율과 책임의 게임 규칙 숙지 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학생들은 재학기간중 그룹으로 편성하여, 사례개발과 토의, 현장연구, 관심분야 그룹스터디, 협상게임 등에 임하도록 한다. 실제 리더십을 학문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여러가지 자발적인 팀 활동을 통해 리더십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3) 경영과 기술의 통합적인 지식과 안목

(Integration of Cross-Disciplinary Functions)

종합적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현실경영과 정책문제를 위주로 한 사례연구와 프로젝트 수행을 강조한다. 특히 신상품경영론이나 비즈니스게임, 신기술동향 등의 과목을 통해 여러 교과목에서 학습한 내용을 통합/정리할 기회를 가지며, 앞으로 Team Teaching 과 Team Research를 더욱 강조할 계획이다. (통합교과목 개요는 별첨 부록 참조)

(4) 전문분야의 탁월한 역량 (Professional Foundations)

경영 및 기술분야의 전문지식과 경영자로서의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해 각 분야의 기초지식과 최신이론/경향을 교육하며, 아울러 한국경영사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교육함으로써 살아있는 지식을 전수한다. 산학연의 여러 분야에서 초빙강사를 확보하여 각 주제별로 현실적인 지식과 안목을 배양한다.

(5) 과학적인 분석과 논리적인 접근방법 (Scientific Analysis)

교육과정을 통하여 과학적, 이론적 기초 위에서 현실 문제해결에 이르는 체계적 사고방식과 필요한 문제해결의 도구를 습득하도록 한다. 박사과정의 경우에는 KAIST의 전통적인 비교우위분야 및 계량과목 및 제반 방법론을 강조하며, MBA의 경우에는 기초계량/통계 및 컴퓨터응용 분야를 모든 학생들이 기본지식으로 숙지하도록 교육한다.

이러한 Global-TIPS의 구체적 실천방안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특히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는 국제 감각을 키우는 교육과정 및 체제의 도입과 다양한 교육방법 및 정보기술의 활용을 강조한다. 첫째, 국제 감각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수진의 일정비율은 영어권의 외국인 교수로 영입하여, 독립적 영어교육보다는 전공교육자체를 영어로 수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영어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아울러 학생들이 국제적 시각을 갖도록 훈련하기 위해 외국의 주요 경영/정책대학원과의 전략적 제휴와 교류를 추진하여, KAIST 학생을 주요 선진대학의 Summer Program에 파견하거나, 선진국 학생의 KAIST 교환방문, 개도국 학생의 유학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한다.

둘째, 다양한 교육방법과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교육효과를 높이려는 노력을 강화한다. 컴퓨터, 통신 네트워크, 멀티미디어, 원격화상강의 시스템 등 첨단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정보화 시대의 선도능력을 배양한다. Multimedia Lecture Hall을 만들어 Computer Networks, Satellite Downlinks, 좌석별 Network 연결 등을 통해 Virtual Classroom을 실현하고, 외국대학과 동시강의가 가능한 체제를 시범적으로 구축한다. 원격화상강의(Videoconferencing) 시스템 설치로 테크노경영대학원과 기업체간의 화상강의, KAIST 대덕캠퍼스와 서울캠퍼스간의 화상강의, 나아가 국내대학간 연계 강의, 외국대학과의 교차 강의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2) 테크노경영대학원의 운영방침 (T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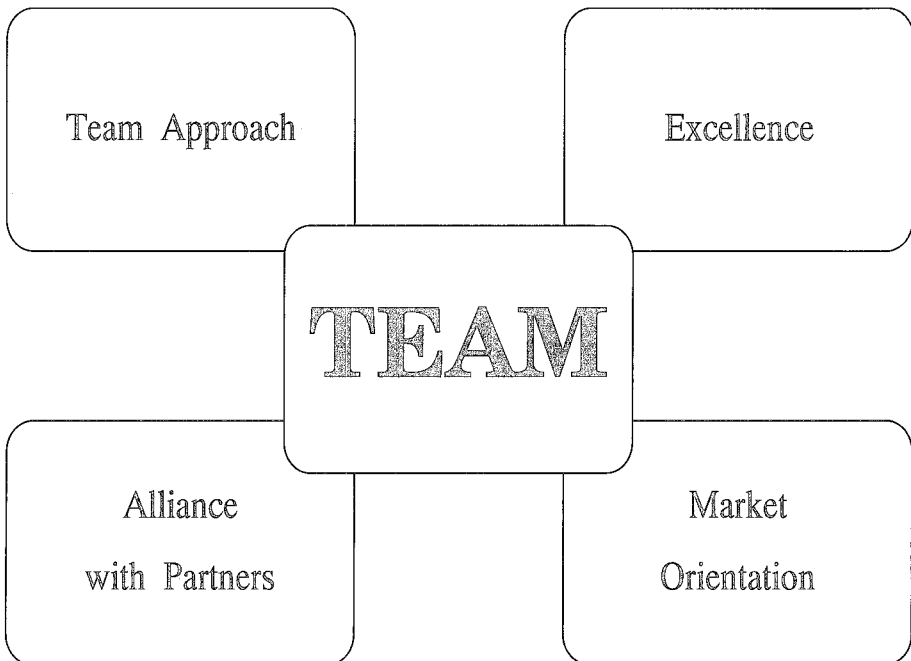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은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TEAM 원칙에 의해 운영된다. 첫째, 경영, 정책 및 기술부문의 다양한 세부분야를 연계하는 팀 접근방법(Team Approach)을 추구한다.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는 매트릭스 조직의 개념을 바탕으로, 각기 다른 세부전공분야를 가진 교수진들이 함께, 사회가 필요로 하는 특수 교육프로그램

램의 개발 및 운영에 참여한다. 아울러 관련분야 교수들간의 연계와 팀워크를 바탕으로 한 연구 및 제반활동을 강조한다.

둘째, 경영/정책부문에서 최고수준의 교육 및 연구활동을 통하여, 세계수준의 탁월성(Excellence)을 갖춘 리더를 양성한다. 테크노경영대학원의 차별화된 교육목표 및 교육방법을 통해 21세기 한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경영 및 정책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학사운영 및 지원행정에 있어서 탁월성의 개념이 깔려 있어야 한다. 물론 학문적/이론적 탁월성을 강조하는 일반 교육프로그램과 실제적용중심의 지도력을 중시하는 특수 교육프로그램간에 탁월성의 척도는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세째, 국내외 관련기관 및 산업계와의 연계(Alliance with Partners)를 통해 국내외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투자효율 및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초빙교수제도의 적극적 활용, 원격강의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국내외 관련기관의 우수한 전문인력들도 선별과정을 거쳐 테크노경영대학원의 교수진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외부자원활용 극대화의 개념을 바탕으로, 투자효율 및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너지효과를 창출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특수교육 프로그램이나 비학위과정의 경우에는 참여기업에 강의실을 만들어 원격강의를 통해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교육혜택이 정보통신망 등 국가전체의 네트워크(National Network)를 통해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 2〉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의 운영방침 : TEAM



네째, 국가와 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 연구를 수요자가 있는 곳에서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Market Orientation)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산업이나 정책결정의 현장과 밀착한 실용적 교육과 연구를 강조한다.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역량의 영역내에서, 사회의 교육수요에 부응하여 여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러나 교육수요가 작은 프로그램은 폐지될 수도 있고, 상당한 교육수요가 새로 형성된 분야가 있으면 일정한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을 신설할 수도 있다. 조직운영에 있어서도 교수중심/투입중심의 조직보다는 학생중심/산출중심의 조직형태로 운영한다. 이러한 탄력적 운영을 통해 여러 교육 프로그램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고, 재정자립 노력을 강화한다.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의 운영원칙으로서 TEAM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분권적 자율운영체제와 책임회계제도(Responsibility Accounting)를 들 수 있다. 특히 테크노경영대학원의 구성과 성격은 KAIST의 여타 이공계 교육과정과 차이가 있으므로, 학사운영에 있어서의 주요원칙은 KAIST 원본부의 기준에 따르되, 경영교육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차별적으로 적용/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테크노경영대학원내 각 활동단위들의 자율운영과 동기를 유발하고 활동단위간의 상호보완 및 예산 간접조정원칙으로 책임회계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순수한 학술활동은 탁월성의 원칙에 의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되, 산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제반 교육 및 산학협동활동은 시장수요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내부운영 메카니즘을 구축한다.

4. 테크노경영대학원의 교육과정 및 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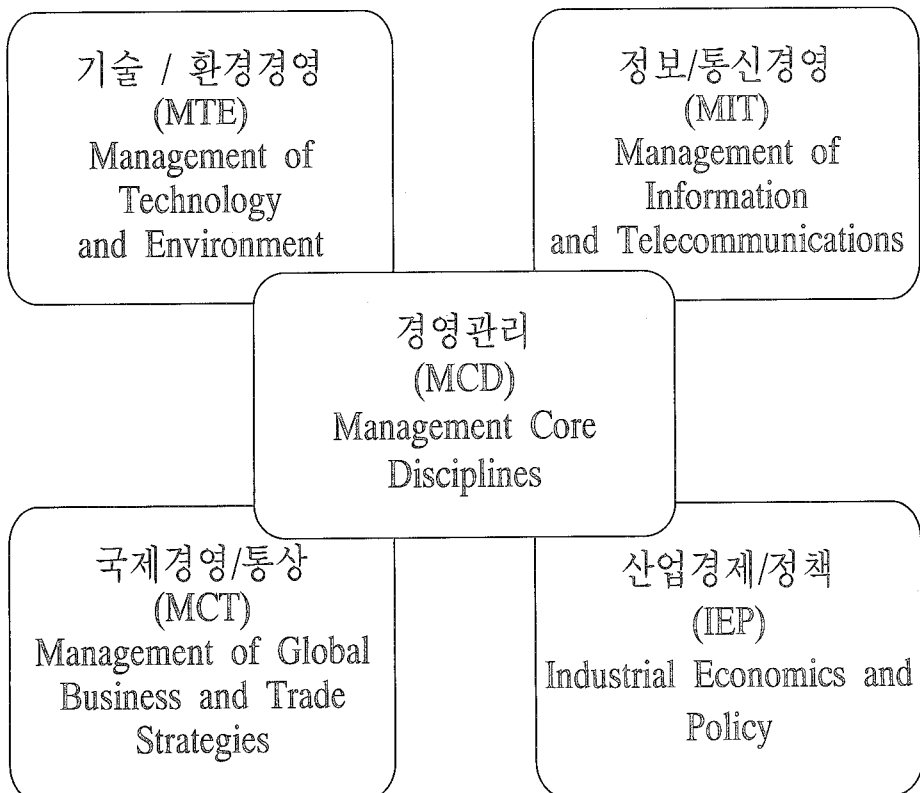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이 세계수준의 경영프로그램을 육성/발전하기 위하여는 경영부문에서도 이공계와 마찬가지로 교육과 연구가 연계되어야 한다. 아울러 산업계 수요에 따른 재교육 기능의 확충이 엘리트 교육의 약화를 가져와서는 안되며, 이들이 조화롭게 병행해서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는 다음의 원칙에 의해 학사업무를 운영한다. 첫째, 학문적 탁월성과 연구를 지향하는 소수정예의 경영공학전공 석박사과정(ME/Ph.D. Track)과 실무형 복합전문교육을 시행하는 특수전공 석사과정(MBA Track)을 두 개의 기본축으로 병행운영한다. 둘째, 엘리트교육 중심의 경영공학전공 석박사과정은 소수정예의 원칙에 따라 KAIST에서 지원하는 장학생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세째, 특수전공 석사과정은 기업에서 지원하는 장학생으로 선발하며, 전일제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최고경영자 등을 위한 비학위과정도 개설한다. 장기적으로는 KAIST 공학계 학생을 위한 학석 복합학위, 공학/경영학 복수석사학위(Dual Degrees)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네째, KAIST의 석박사 졸업생의 기

술창업과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전문경영인, 정책전문가를 양성하는 비학위과정을 설치한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전공분야별로 설치된 관련 연구센터가 주관해서 개발운영한다.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의 경영공학전공(ME/Ph.D. Track)과 특수전공(MBA Track)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경영공학전공 석박사과정 (ME/Ph.D. Track)의 집중분야

경영공학전공 학생들은 공통교과목을 이수한 후 하나의 집중분야를 선택하고, 각 집중분야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및 기타이수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 집중분야제도는 기존의 학과와 같은 행정단위는 아니며, 학생들의 학사지도 등을 위해 구분한 학문적인 집중분야(Area of Concentration)를 의미한다. 이 경영공학전공 석박사과정은 석박사과정 책임교수, 각 전공분야 교수가 참여하는 학사연구심의위원회의 협의하에 운영하며, <그림 3>에 나타난 5개의 집중분야를 중심으로 발전시킨다. 물론 집중분야는 향후 교육/연구 수요 및 공급능력에 따라 신설/폐지/조정할 수 있다.

〈그림 3〉 테크노경영대학원 석박사과정의 5개 집중분야



(1) 기술/환경경영 집중분야

- 기술경영 : 기술경영, 기술정책,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 환경경영 : 환경경영(Green Management), 환경정책, 지구환경, 에너지경제/정책

(2) 정보/통신경영 집중분야

- 정보경영 : MIS, Intelligent System, Software Engineering, Data Management
- 통신경영 : 통신시스템 경영, 통신경제/정책, 통신시스템 개발

(3) 경영관리 집중분야

- 조직/경영전략 : 조직, 경영전략
- 재무/회계/금융 : 재무, 회계, 금융, 보험
- 마케팅/디자인경영 : 마케팅, 신상품개발, 디자인 경영
- 생산경영 : 생산전략, TQM, Supply Chain Management, CIM
- 계량경영 : 통계, 최적화

(4) 국제경영/통상 집중분야

- 국제경영
- 국제협상 및 통상정책

(5) 산업경제/정책 집중분야

- 경제학
- 정책과학 및 산업정책

2) 특수전공 석사과정(MBA Track)의 전공분야

현재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는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의 중견관리자 또는 초급간부를 위한 기업장학생과 산학장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기술과 경영학 및 정책의 제분야를 연계하는 학제적 접근을 적극 장려하는 특화된 4가지 MBA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교육수요에 따라 특화된 교육과정을 추가할 계획으로 있다. 기존의 4개 MBA 교육과정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술경영전공 (Technology Management: Techno-MBA)

기술경영전공은 기술에 바탕을 둔 경영교육을 통하여, 기술을 이해하는 경영자와 경영안목을 가진 기술자를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95년 3월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산업체 중견관리자가 주된 교육대상이 되며, 실용성과 사례를 강조하는 교과

목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일반 석.박사과정 교육내용과 차별화를 도모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현재 143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며, 평균 연령은 37세이다.

기술경영전공은 공통필수 3학점, 전공필수 18학점, 전공선택 24학점, 연구 6학점 등 총 5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국제적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해외연수가 포함된다. 기술경영전공에서는 공통필수 1과목(확률 및 통계, 또는 경영통계 분석) 과 전공필수 6과목이 있는데, 이중 경영분야가 경영학원론을 포함한 3과목이고, 기술분야가 신기술동향을 포함하여 3과목이다. 기술경영전공의 교과목은 <부록>에 나타나 있다.

(2) 경영정보전공(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 MIS - MBA)

경영정보전공은 기업 및 행정부서의 중간간부를 위해 경영정보 교육을 목적으로 하며 기업체 중간간부 및 고급공무원으로서 학습능력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 전공에서는 공통필수 3학점, 전공필수 12학점, 전공선택 21학점 등 교과목 36학점 이상과 연구 6학점 이내 등 모두 4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석사논문으로 실제사례 중심의 프로젝트도 인정한다. 한편 연구논문 과정이나 소수과목에 한해 경영정보시스템 분야의 우수 10개 대학의 협력체인 MIS WORLD 10 및 기타 제휴대학에 자기 부담으로 1-2학기 파견하여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경영정보전공에서는 공통필수과목으로 전산응용개론 또는 정보처리실습을 수강하여야 하며, 4개의 전공필수과목 중 3과목은 경영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관리, 정보시스템분석 및 설계,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정보통신시스템,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전문가시스템, 정보시스템감사 및 보안 등 8개 교과목중에서 이수하면 된다.

(3) 정보통신경영/정책전공

(Telecommunication Management and Policy: Telecom-MBA)

최근의 통신산업은 기술주도와 국제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급속한 기술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서비스가 출현하고 있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통신미디어 간의 융합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수요가 고도화함으로써 시장구조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전략적 제휴와 틈새시장의 개발 등 새로운 기업전략이 등장하고 있고 정부의 규제시각도 국익 우선의 기초하에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통신기술과 경영의 결합이 적극 요구되는 시대에 T자형 전문인력, 즉 기술을 이해하는 정책전문가 및 경영인, 정책/경영을 이해하는 기술인의 양성이 시급하다. 즉 통신분야에서 기술인력과 정책/경영인력의 양성이 모두 필요하며, 양 분야의 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교육 Discipline의 비중에만 차이가 있고 기술과 서비스간의 불가분의 관계를 볼 때 기술, 정책, 경영 및 경제를 망라하는 학제적 교육이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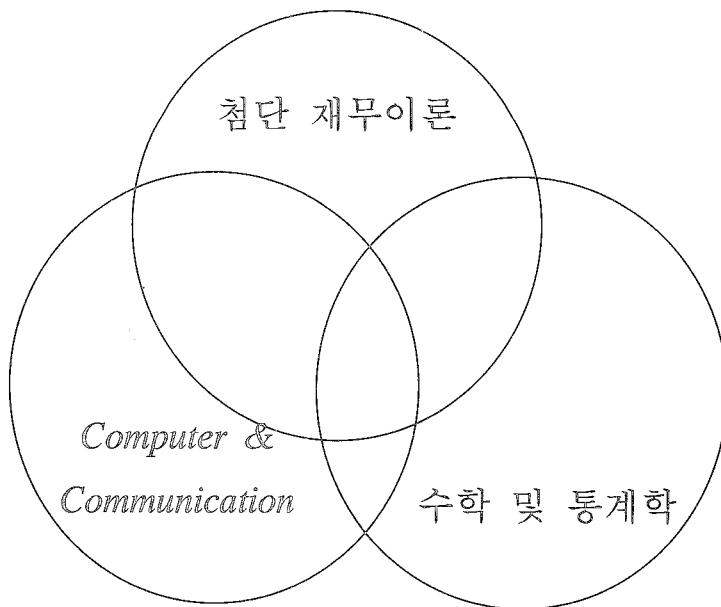
정보통신경영/정책전공은 정보통신 관련 기술을 이해하는 정책/경영 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하며, 2년제 정규 석사과정으로 운영한다. 이 과정은 전자, 전산, 경영, 경제, 정치, 사회, 언론 등을 전공한 학사 학위 소지자 중 신규 대학 졸업자와 2-3년 경력의 산업체 유경험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선진국의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과 제휴하여 운영한다. 정보통신경영/정책전공에서는 정보통신시스템, 정보통신개론 및 실험, 통신경제학, 컴퓨터기술개론 등 4개의 전공필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한다. 정규 석사과정과 별도로 단기연수과정도 운영하는데, 여기서는 5년 이상 정부, 기업에서 실무경험을 가진 사람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4) 금융공학전공 (Financial Engineering: FE-MBA)

자본시장의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고 주가지수선물의 도입을 눈앞에 두고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할 때 첨단 금융공학의 지식을 갖춘 금융 실무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된다. KAIST 금융공학 프로그램은 금융기관, 다국적기업 및 공공기관의 금융실무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금융환경에 대응하고 나아가서는 금융환경의 변화에 직접 참여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배양해주기 위해 국내 최초로 1996년 3월에 설치되었다. 금융공학전공에서는 <그림 4>와 같이 경영정보시스템, 전산학, 통계학 및 수학의 기초지식 위에 첨단재무이론을 종합하여 교육한다.

〈그림 4〉 금융공학전공의 교육분야



금융공학전공에서는 Modernized Teaching, 즉 첨단매체(컴퓨터, 통신 네트워크, 멀티 미디어, 원격화상강의 체계 등)를 최대한 활용하여 정보화 시대의 선도능력을 배양하며, 국제 감각의 교육을 한다. 이를 위하여 교수진의 일정비율은 영어권의 외국인 교수로 영입하며, 외국의 주요 경영 및 정책대학원과의 전략적 제휴와 교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하여 University of Illinois와 UC Irvine과 학생과전 협력계획을 합의하였고, 이밖에도 Carnegie Mellon University 등의 대학에도 본 프로그램의 학생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공학전공은 2년 전일제 석사과정으로 운영하며, 1년차에는 KAIST에서 교육을 받고, 2년차 1학기에는 국외의 협력대학에서 교육한다. 금융공학전공에서는 공통필수 3학점, 전공필수 15학점, 전공선택 27학점, 연구 6학점 등 총 5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금융공학전공에서는 공통필수 1과목(확률 및 통계, 또는 경영통계분석)과 경영수학, 통계적 분석방법, 투자분석, 증권분석 및 거래, 경영정보시스템 등 5개의 전공필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밖에도 향후 환경경영 및 정책 전공(Green Management and Policy : Eco-MBA), 마케팅 및 디자인경영 전공 (Marketing & Design Management : MD-MBA) 등을 시장수요와 교육 여건에 따라 개설할 계획으로 있다.

3) 연구센터(Research Centers)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은 연구 및 제반 산학협동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테크노경영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테크노경영연구소 산하에 분야별 센터를 두고 있다. 이 센터들은 분야별로 용역연구와 자문활동 등을 수행하고 앞서 소개한 특수전공 석사과정(MBA Track), 단기과정, 최고경영자 및 정책전문가 과정의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분야별 센터는 수요와 실적에 따라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설치 및 폐지, 학위과정개발 관련사항은 학사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한다.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에는 현재 다음과 같이 5개의 연구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연구센터들은 수입창출의 기본단위가 되기도 한다.

- ① 기술경영/정책연구센터 (Center for Technology & Operations Management: C-TOM)
- ② 경영정보공학연구센터 (Center for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CMIS)
- ③ 통신경영정책연구센터 (Center for Telecommunications Management & Policy: CTMP)
- ④ 금융공학연구센터 (Center for Financial Engineering: CFE)
- ⑤ 환경경영 및 정책개발센터 (Center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 Policy: CEMP)

5. 테크노경영대학원 및 우리나라 경영교육의 향후발전방향

1) 테크노경영대학원의 기대효과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의 설립운영은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미국식 MBA 교육과정이 시작되었다는 점 뿐만 아니라,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특화된 경영프로그램이 정규학위 프로그램으로 개설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의 성공여부는 우리나라 경영교육의 향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산업계 중견인력을 대상으로 한 경영교육 프로그램은 중장기적으로 대학과 산업계간의 많은 연결고리를 만드는 기능을 함으로써 산학협동을 내실화/활성화하는데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KAIST에 테크노경영대학원을 설립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교육의 기본기능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테크노경영대학원의 특화분야인 기술/환경/정보통신 등 핵심분야에서 경영 및 정책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국가발전 및 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 즉 경영과 기술의 통합적인 지식과 안목을 겸비한 인적자원의 양성은 KAIST의 발전에도 커다란 공헌을 할 수 있음은 물론 국가발전 및 기업경쟁력 향상의 일선에서 많은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산업계와 학계를 연결시키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을 길러냄으로써 산학협동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테크노경영대학원이 경영 및 정책분야에서 국내외 연계망 구축(Networking)을 통해, 여러기관에 흩어져 있는 우리나라의 역량을 한 곳으로 결집시키는 중심체(Hub)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경영 및 정책분야의 국가적 수요에 부응하여, 테크노경영대학원이 정부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범세계적인 시야에서의 연구와 교육 그리고 자문활동을 통하여 정부, 기업 및 사회의 두뇌집단(Think Tank)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셋째, 테크노경영대학원이 새로운 국제질서하의 한국형 경영학 이론 및 교육체계를 정립하고 그 보편성과 특수성을 규명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경영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우리 기업이 취해야 할 경영방향을 연구분석함으로써 기술주도시대에 한국기업을 위한 경영학 체계 및 실천원리를 파악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다.

2) 테크노경영대학원의 향후발전계획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은 앞으로 국내의 타대학이나 기업, 연구소, 주요 공공단체 등과 교수초빙, 공동연구, 실습과전, 원격강의 등 다양한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을 통

한 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협력을 통하여 테크노경영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이 현실적인 경영 및 정책이슈와 직결되도록 한다. 강의교수제, 상호 교수진 파견 등을 통한 실무전문가의 교수초빙 활성화, 기업중역진이 테크노경영대학원에 단기간 머물면서 세미나 및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제도(Executives in Residence Program) 도입, 학생들의 현장 실습파견제도 강화, 대형 장기 공동연구 프로그램의 적극 추진, 원격강의 프로그램 등을 개발을 통해 새로운 경영교육 프로그램이 국내 관련기관들간의 상호혜택을 확대하는 협력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특히 각 연구센터별 컨소시엄의 구성, 비학위 프로그램의 확대,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의 운영, 경영관련 정보제공서비스의 확충 등을 통해 산학협동활동을 강화하고 기업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상호혜택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국제적인 경영대학원으로 발전하기위해, 교육 및 연구에 있어서 미국 뿐 아니라 유럽, 아시아의 우수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외국인교수의 채용 및 초빙, 외국 대학이나 연구기관과의 상호 교수 교환제도, 외국학생들의 입학 장려, 외국 대학이나 연구기관과의 학생 상호교환, 해외 단기 연수 등을 확대 실시하고, 국제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국제포럼, 연구 컨소시엄, 세미나, 심포지움 등을 유치한다.

이러한 계획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대학과 기업의 장기적인 신뢰관계의 바탕하에서 재원확충을 위한 노력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 우리나라 경영교육의 향후발전방향

우리나라의 경영교육도 전반적인 국제기본질서 및 국내산업환경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변화의 기로에 서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견관리자들의 재교육을 위해 외국대학으로 떠나고 있고, 국내교육시장을 겨냥한 외국대학들의 방문도 끊이지 않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대학은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경쟁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능동적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개혁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미국에서도 MIT, 펜실바니아 대학 등 경영교육의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을 선도했던 대학들은 미국경영대학 평가에서 뿐만 아니라 산업계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영교육은 어디로 가야하는가?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경영교육의 발전방향을 4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각 대학의 전통과 경쟁우위를 최대한 활용 하여 경영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을 차별화(Differentiation) 하여야 한다. Sloan School은 공학 프로그램의 전통과 우수성을 연계 활용하고 실무위주의 전문가 양성을 강조함으로써 경쟁우위를 지키고 있으며, Wharton School도 공학-경영학 교육의

연계, 수요자 중심의 실무형 프로그램, 통합교과목의 강조 등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길러내고 있다. 반면 Harvard Business School은 General Management, Entrepreneurship 등에서 전통적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영대학도 각자의 경쟁우위를 파악하여 차별화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영교육의 결과 사용자이자 주 고객인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대학은 기업이 원하는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고, 기업은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내용의 구성에서 산업현장을 중시하고 사례를 많이 활용하여야 하며, 실습교육(Internship)을 확대하여 현실적응능력이 뛰어난 산업계의 역군들을 양성해야 한다.

세째, 과감한 국제화의 추진이다. 국제화 관련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교육대상 및 교육방법의 국제화도 요구된다. 활발한 국제교류와 국제화된 경영환경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의 개발, 각국의 제반 경영문화의 이해촉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새로운 차원의 경영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현실에 맞는 경영이론과 모형, 기법,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단순히 선진 경영이론의 도입이나 해외 대학의 경영교육의 모방으로는 우리 산업체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경영교육의 종속화만 심화될 뿐이다. 우리 문화와 경영방식중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우위를 가져다 줄 수 있고 세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우리의 경영이론과 모형, 사례개발이 체계적인 산학협동을 통해 연구되어져야 하겠다.

이러한 노력들은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나 새로운 경영교육 패러다임(Paradigm)의로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미흡한 경영능력을 세계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된다. 새로운 경영교육을 위한 조그만 시도들이 축적되고, 우리나라 경영대학들간에 확산될 때, 우리 경영자들이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더 큰 기여를 할 것임에 틀림없다.

부 록

〈부록 1〉 신기술동향 교과목 개요

신기술동향에서는 주요 기술분야별로 최근의 기술발전 동향을 소개한다. 특히 전자, 정보통신, 기계, 소재, 환경 등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세미나 형태로 진행한다. 주요 강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 문자인식 컴퓨터 기술
2. 광섬유 기술
3. 수소저장합금 기술
4. 반도체 기술
5. 퍼지 기술
6. 로봇 기술
7. 정보저장 기술
8. 정밀가공 기술
9. 디지털 영상 기술
10. 공장 자동화 기술
11. 액정기술
12. 정보활용 기술
13. 생분해성 플라스틱 기술
14. 온 초전도 기술
15. 마이크로 머신 기술
16. 스마트디자인 기술

신기술동향의 세부주제는 매년 보완된다.

〈부록 2〉 신상품경영론 교과목 개요

신상품경영론의 강사진은 마케팅, 전략/조직, 기술경영, 생산경영, MIS 전공교수 및 산업체 실무자로 구성되며, 경영의 여러 분야를 통합적으로 다룬다. 이 과목에서는 신제품개발 및 신상품경영의 기본개념과 실제기법들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다양한 경영기능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아울러 각 주제별로 이론적 바탕위에서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학생들에게 Term Paper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신상품경영의 실

제적용능력을 키운다. 구체적으로는 신상품개발과정에서의 개발전략과 프로젝트관리에 관한 기본개념과 접근방법, 프로젝트 관리기법, 조직설계 및 관리, 마케팅조사와 수요예측, 시장진입마케팅 등을 다룬다.

수업진행은 담당교수의 강의가 2/3, 학생들의 발표와 토의가 1/3을 차지한다. 학생들은 팀을 구성하여 각 팀별로, 1) 실제로 수행되었던 신상품개발 사례 하나를 선별하여 신상품개발의 전략과 과정을 분석하고, 아울러 2) 실제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상품을 개발 하기위한 계획서를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각 회사에서 신제품 개발 역량 개발을 위한 학습조직 구축 계획 수립 결과를 학기 말에 Workshop을 통해 발표된다. 신상품경영의 강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I. 신상품경영과 신상품개발전략 : 기본개념, 기획 및 개발과정

1. 신상품개발의 개요 및 전략적 중요성
2. 신상품개발전략의 기본개념
3. 신상품개발 기능별 전략의 연계
4. 신상품 마케팅 : 이론과 실제
5. 신상품 디자인 : 전략과 경영
6. 신상품 기획
7. 신상품개발 과정

II. 신상품개발 프로젝트의 관리

8. 신상품개발 프로젝트관리의 기본틀
9. 신상품개발의 성패요인 및 사례분석
10. 신상품개발 조직설계 및 리더역할
11. 신제품개발 조직 사례분석
12. 신상품개발의 세부기법과 예비생산
13. 신상품 출하

III. 프로젝트발표 및 종합

14. 신상품경영의 교훈 및 학습조직의 구축
15. Term Project 발표

〈부록 3〉 기술경영전공의 교과목

구분 과목	교과목명	비고
공통필수	○ 확률 및 통계 (또는 경영통계분석)	
전공필수	[경영분야 교과목] ○ 경영학원론 ○ 경영조직 및 행태론 ○ 기업재무정책 ○ 생산전략 및 관리 ○ 물류관리 및 품질경영 ○ 마케팅 ○ 경영정보시스템 ○ 기술경영 및 전략 ○ 관리경제 ○ 한국경제와 산업정책 ○ 회계 및 경영분석 ○ 경쟁분석	경영학원론 포함 3과목 반드시 선택
	[기술분야 교과목] ○ 신기술동향 ○ 데이터베이스시스템 ○ 정보통신개론 및 실험 ○ 생산기술 및 산업동향 ○ 전자공학개론 및 최신기술 ○ 컴퓨터기술개론 ○ 컴퓨터 응용 엔지니어링 개요 ○ 화학공학 개론 및 최신기술 ○ 화학공학안전 및 환경 ○ 현대산업사회와 화학 ○ 신소재 개론 및 최신 기술 ○ 에너지공학	신기술동향 포함 3과목 반드시 선택
전공선택	○ 경영통계분석 ○ 경영예측 ○ 국제협상전략 실습 ○ 신상품경영론 ○ 전략경영 ○ 비즈니스게임 ○ 테크노경영 실습 ○ 경영자문 실습 ○ 기술경영 특수논제 ○ 공업경제 사례연구	
연구	○ 논문연구(석사)	

〈부록 4〉 경영정보전공 교과목

구분 과목	교과목명	비고
공통필수	전산응용개론	
전공필수	○ 경영정보시스템 ○ 정보시스템관리 ○ 정보시스템분석 및 설계 ○ 데이터베이스시스템 ○ 정보통신 시스템 ○ 의사결정지원시스템 ○ 의사결정지원시스템 ○ 전문가시스템 ○ 정보시스템감사 및 보안 ○ 재무정보시스템 ○ 생산정보시스템 ○ 마케팅정보시스템 ○ 회계정보시스템	
전공선택	○ 정보처리실습 ○ 자료구조 및 프로그래밍 ○ 시뮬레이션 ○ 통신망설계 및 응용 ○ 정보통신망응용 ○ 경영혁신론 ○ 고객/유통정보시스템 ○ 소프트웨어공학 ○ 분산데이터베이스 ○ 신경망과 자동학습 ○ 논리프로그래밍과 응용 ○ MIS행태적연구 ○ 객체지향모델링 및 프로그래밍 ○ 인공지능프로그래밍 ○ 인공지능응용 ○ 인터넷의 응용경영 ○ 전략정보시스템 ○ 인공지능의 고등논제 ○ 데이터베이스의 고등논제 ○ 정보시스템프로젝트(1) ○ 정보시스템프로젝트(2) ○ 경영정보특수논제	
연구	○ 세미나 ○ 논문연구(석사)	

〈부록 5〉 통신경영/정책전공의 교과목

구분 과목	교과목명	비고
공통필수	○ 전산응용개론 ○ 확률 및 통계학 ○ 공업경제 및 원가분석학	
전공필수	○ 정보통신시스템 ○ 정보통신개론 및 실험 ○ 통신경제학 ○ 컴퓨터기술개론	
전공선택	○ 경영전략론 ○ 추계적과정 ○ 예측이론 및 응용 ○ 의사결정분석과 응용 ○ 서비스시스템의 운영전략 ○ 시뮬레이션 ○ 정보처리실습 ○ 통신망설계 및 응용 ○ 통신경영 ○ 고급산업조직론 ○ 정보통신망응용 ○ 네트워크이론 및 응용 ○ 대기이론 및 트래픽 공학 ○ 통신시스템실험 ○ 정보통신정책 ○ 인터넷의응용경영	
전공선택	○ 경영학원론 ○ 경영수학 ○ 경영통계분석 ○ 계량경영 ○ 통신예측 및 시장분석 ○ 기업재무정책 ○ 마케팅 ○ 경영정보시스템 ○ 정보시스템관리 ○ 정보시스템분석 및 설계 ○ 데이터베이스시스템 ○ 데이터통신 ○ 무선통신 ○ 광대역통신 ○ 디지털신호처리 ○ 경제학원론 ○ 관리경제 ○ 신기술동향 ○ 전자공학개론 및 최신기술 ○ 컴퓨터기술개론 ○ 회계 및 경영분석 ○ 신상품경영론 ○ 전략경영 ○ 정보시스템감사 및 보안 ○ 국제통신정책 ○ 멀티미디어 개론 및 실험 ○ 통신경영특수문제 ○ 공업경제사례연구	
연구	○ 세미나 ○ 논문연구(석사)	

〈부록 6〉 금융공학전공의 교과목

구분 과목	교과목명	비고
공통필수	○ 확률 및 통계학	
전공필수	○ 통계적분석방법 ○ 경영수학 ○ 투자분석 ○ 증권분석 및 거래 ○ 경영정보시스템	
전공선택	○ 추계적 과정 ○ 예측이론 및 응용 ○ 증권시장론 ○ 채권론 ○ 기업인수합병 ○ 미시경제학 ○ 화폐금융론 ○ 시장미시구조 ○ 수차해법의 재무응용 ○ 소프트웨어 공학 ○ 객체지향모델링 및 프로그래밍	
전공선택	○ 경영통계분석 ○ 한국경제 및 금융 ○ 국제금융시장 ○ 보험론 ○ 정보시스템관리 ○ 선물 및 옵션 ○ 파생금융상품 ○ 금융기관론 ○ 거래 S/W 및 프로그래밍 ○ 모의거래 ○ 재무정보론 ○ 금융공학특수논제 ○ 공업경제사례연구	
연구	○ 금융공학세미나 ○ 논문연구(석사)	